

# Chamber Music in the Kitchen

음악의 여러 연주 형태 중 연주자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선사해 주는 것은 바로 실내악 연주가 아닐까 싶다. 실내악 연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약간 특별한, 하지만 종종 놓치고 마는 조건이 요구된다. 실내악 장르는 여러 악기들의 다양한 편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방대하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작곡가들이 실내악이라는 장르에 더 각별한 열정을 가지고 작곡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방대한 레퍼토리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져 연주되고 있다.

실내악 연주에서 연주자들은 각각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부여 받으며 '실내악'이라는 일종의 대화 형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실내악은 음악의 그 어떤 장르보다 큰 기쁨과 정신의 고양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수년 간 실내악 수업을 가르쳐 오면서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실내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이다. 물론 이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본 지면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실내악에 대한 생각, 연습과 리허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이야기 해보겠다. 먼저, 제목은 'Chamber Music in the Kitchen'으로 지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실내악을 요리할 시간'이기 때문이다.

## 무엇을 요리할까요?

실내악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각각의 연주자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갖기 위해 먼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음악적 취향과 스타일, 연주 방법을 지닌 연주자들이 한 팀의 구성원으로서 똑같은 생각과 전연일률적인 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연주자들 서로가 하나의 공통된 컨셉을 세우고,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면서 발전시켜 나아갈 때 감상자로부터 그 연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가령, 한 실내악 팀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들은 음반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른 음반을 고집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완고한 생각을 내려놓은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고전시대 음악들, 예를 들어 하이든, 모차르트 등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작곡가가 악보를 정확하게 기보하지 않아서 연주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아티큘레이션 처리와 활 처리에 있어서 연주자들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그 곡의 시대적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작곡가의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도 상의해 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재료

만약 생산적인 리허설 분위기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리허설 작업의 큰 부분을 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연주자들 간에 편안한 의사소통, 서로에 대한 진절한 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 건설적인 의견 교환 등은 효과적인 리허설을 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가 된다. 음악적 수준이나 능력 차이에 상관없이 팀원 중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리허설 때 서로의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하려면 그 팀에 적절한 리허설 진행 속도를 찾거나 균형 잡힌 대화를 나누는 등 이찌면 짧지 않은 시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혹시라도 다른 팀원의 연주에 대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거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난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만 하면 안 된다. 왜 좋지 않은지, 왜 마음에 들지 않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

연주자들이 곡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각자가 총보를 준비해서 볼 것을 권한다. 내가 연주하는 동안 다른 연주자들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충분히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럴 땐 총보를



확인해 봄으로써 혹 빔어질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거기 악센트 안 넣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실제로 악보에 악센트가 붙여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 레시피

리허설의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다루는 건 아마 평생에 걸쳐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른다. 실내악 구성도 다양하고, 곡들 또한 저마다 다른 음악적 상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들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다.

**음정 :** 연주할 작품 조의 스케일로 리허설을 시작해 보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연주자들이 동일한 음정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듬 :** 다소 복잡한 패시지들을 느리게 연습해 보라. ‘Slow Motion’은 여러 음악적 라인들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고, 서로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전체적 조화에 도움을 준다. 가끔 꾸밈음 때문에 리듬을 헛갈려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꾸밈음을 빼고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연습할 때 자기도 모르게 템포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메트로놈이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

**아티큘레이션 :** 고전시대 레퍼토리에서는 반주 음형이나 음의 길이나 아티큘레이션에 특별히 주의해야 된다. 스포르찬도나 포르테피아노 또한 비슷하게 소리 나야 한다. 같은 음형을 가진 악기들끼리만 따로 맞춰 연습하도록 한다.

**파트 연습 :** 서로 다른 조합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령 반주를 담당하는 파트만 따로 연습해 본다거나, 내성을 제외하고 베이스 파트와 주선율만 따로 연습해 봄으로써 곡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연주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음 :** 리허설을 녹음해서 들어보면 평소 잘 알아차리기 어려운 문제들 즉, 리듬이나 음정, 템포 등의 문제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쉽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인 녹음기나 스마트폰으로 자주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간단한 녹음장치로 녹음을 하면 실제 연주 사운드와 다른 품질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간의 음량 밸런스나 쉐어림, 소리의 질이 녹음 기계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다. 보통 레퍼토리 선곡은 자신이 좋아하거나 음악회 등지에서 큰 감동을 받은 곡 위주로 정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리허설 일정 등이나 곡의 난이도도 항상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편성이 커질수록 리허설 시간을 정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오리, 맛있게 즐기시다!

앞서 얘기한 실내악 연주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다 기억하자니 실내악은 요구사항이 매우 많은, 지극히 어려운 장르로 보일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제까지 살펴본 실내악에 대한 바른 접근방식을 바탕으로 돌보이는 통찰력과 열정을 가지고 리허설에 임한다면, 연주를 더욱 잘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고, 연주력도 그만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

글·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최우수 졸업
- 런던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부수석, 인스브루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역임
- 현재 수원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오푸스 앙상블 멤버, 에라토 앙상블 멤버, 현대음악앙상블 소리 멤버,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멤버,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 멤버

